

농약안전성을 말한다 ④1

농약의 안전과 안심 과학자의 역할(Ⅳ)

‘과학적 안전 · 소비자 심리적 안심’ 괴리 불식위해 쉬운정보 제공해야

■ 홍보부

국민이 『그런 것을 원한다』 『이러한 시책을 실시 않으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 등의 이유로 농약의 사용을 50%삭감하는 농업을 추진하는 것은 행정기관으로써 올바른 판단을 하는 것인가. 만약 농약의 사용을 50%삭감하는 농업을 추진한다면, 1일 섭취허용량이나 잔류기준을 일률적으로 50%줄이는 방안이 합리적인 동시에 보편적으로서, 준수하기 쉬운 기준으로 생각되지만, 그러한 주장은 옳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농작물생산에 있어 농약의 사용에 관해서, 안전과 안심이 하나가 되도록, 혹은 조금이라도 가까이 있는 행정, 과학자, 생산자, 유통업자, 매스컴이나 소비자 단체가 하나가되어 서로 협조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농약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소비자와 생산자나 유통업자가 적극적으로 신뢰를 갖고

관계를 맺는 것이, 멀어져 가고 있는 먹거리의 『안심』을 가까이 끌어당기는 적절한 방법으로 생각된다.

4. 농약의 위해성 전달

여기까지 농약의 위해성 전달의 중요성에 대하여 재삼 말해왔지만 농약에 있어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와 『위해성 전달』과의 관계에 대하여 다시 정리하여 보고자 한다(그림 1).

위해성 영향평가의 단계에는 일반적으로 농약도 포함 『전체물질은 독이 있다』로 해서 취급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독성을 갖지 않은 물질은 존재하지 아니하며 유해한가 무해한가는 그 물질의 양, 사람에게 대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 섭취량으로 결정된다. 농약이나 잔류농약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에도 작물 등의 식품중에는 잠재적인 위험인자(잔류농약)가 존재하고 있는 것을 전제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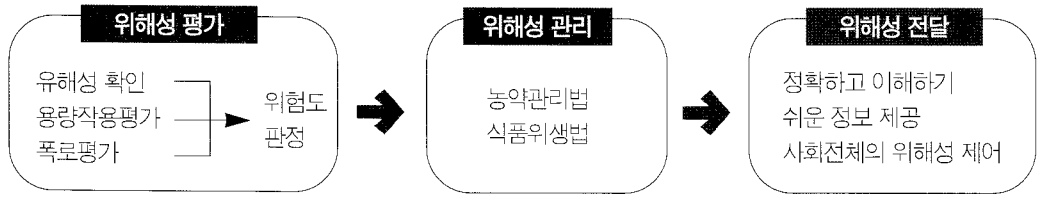


그림 1. 농약의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위해성 전달과의 관계

해서, 정해진 조건하에서 인간에 미치는 유해한 작용과 그 강도에 관해 과학적 식견에 기초를 두고 위해성을 평가한다.

다음에 위해성 관리에 있어서는, 위해성 평가에서 평가되는 위험도를 받아들이는 것이 적절한가, 저감화를 피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검토한다. 이때에 『위해성』이라 하는 것은 유해성·위험성이 실현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위해성은 확실히 일어날 위험은 없고 위험성이 있을까 하는것이지 바로 즉시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예를들면,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전체가 다 폐암에 걸리는 것은 아니다. 또한 농약도 함유된 전부의 물질은 독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로부터 전혀 위험성이 없는 『제로리스크』의 물질은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농약의 경우에는 『잔류농약으로 인한 사람의 건강에 위험성이 있어서는 안된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농약관리법, 식품위생법에 기초한 작물에서의 농약 잔류에 관한 등록보류기준이나 농약잔류기준이 정해져 제로리스크(제로 위험성)에 가깝도록 하는데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들 규제는 그 시점에 있어 최신의 과학적 정보에 기초를 두고 행하여지고 있다. 그래서 농약의 독성 등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실정보가 얻어지면 그 정보에 기초를 두고 안전성의 재검토가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그 검토결과에 기초를 두고 3년간의 농약등록의 관찰기간을 가지는 재등록 제도가 행해지고 있다.

위해성 전달이라 함은 위험도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일반에게 널리 제공하고 상호이해를 깊게 하는 것이다. 농약의 위해성 평가와 함께 위해성 관리는 과학적이고도 객관적 데이터에 기초를 두고 행하여야만 한다.

한편, 소비자의 불안은 대부분의 경우 정확하고 동시에 이해하기 쉬운 정보의 부족에 기인하고 있다.

이와같이 과학적 견해로부터의 안전과 소비자의 주관적, 심리적인 안심과의 거리를 없애고 사회전체에 위해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이해하기 쉬운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 위해성 전달이 잘 이루어 지길 바란다. (끝)